2019 **studio atelier11**

2022 **gramping starville**

2016 **bakery butter mornig**

2018 **la romance**

2019 **house M**

2020 **naksanjae**

2020 **hado diary**

2020 **pavilion atelier**

2021 **trism**

2023 **ados st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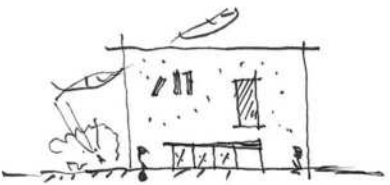
2023 **urdr**

studio atelier11

이도동, 2019

설계 (주)아뜰리에11 건축사무소_박현모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 693번지 **지역지구** 제1종일반주거지역 **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실) **대지면적** 140.00㎡ **건축면적** 83.00㎡ **연면적** 310.79㎡ **건폐율** 59.29% **용적률** 171.74% **규모** 지하 1층, 지상 4층 **최고높이** 15m **조경면적** 10.00㎡ **주차대수** 2대 **외부마감** 스타코플렉스 **벽** 노출콘크리트 **천장** 노출콘크리트, 스포트라이트, 다운라이트, 펜던트 **감리** (주) 아뜰리에 11 건축사 사무소 **시공** (주)민형종합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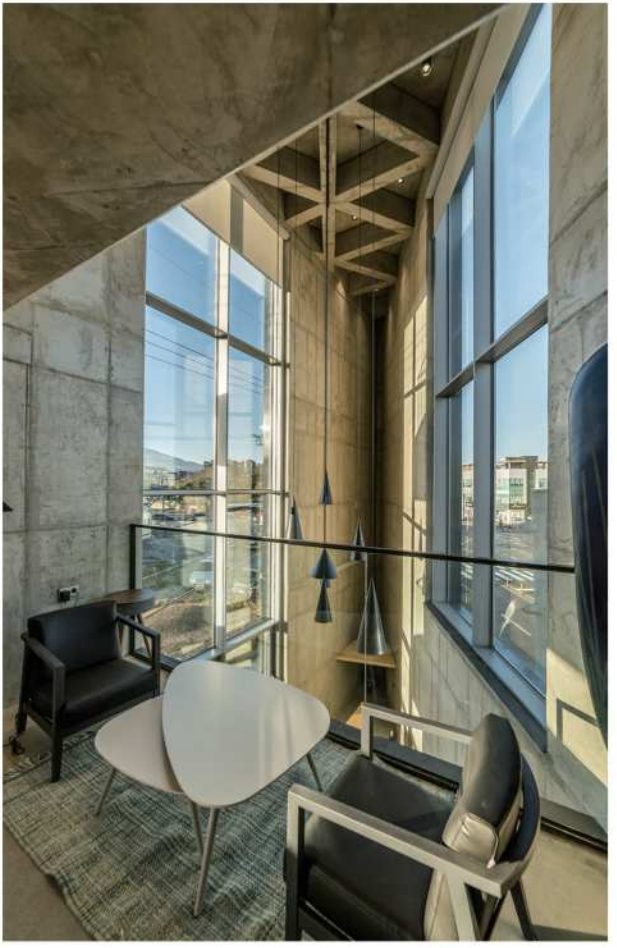
스튜디오 아뜰리에 11의 건물 배치는 원초적 기하학 형태 중 강한 시각적 이미지의 삼각형이며 크기를 달리한 삼각형의 결합은 인간과 자연이 만나는 장소로 역할을 담당한다. 사람들을 연결짓는 새로운 건축적 장치로 작용하며 단순한 형태 속에 불륨변화에 의한 공간체험으로 다양한 공간의 시퀀스를 제공한다.



atelier ii

아뜰리에11 사옥이 들어서는 위치는 북쪽으로 최근 도시 개발이 이루어진 선과 격자형 체계, 그리고 남쪽으로는 자연적 패턴이 보존된 유기적인 체계로서 서로 다른 도시계획적 도로망이 교차하는 접점에 자리하고 있다.

이런 양립의 장소에서 대지의 형상이 그대로 드러나고, 중간적 매개의 역할을 담당할 복합체로서 추상적인 플라토닉 형태를 기반으로 공간 변화를 조직하는 방법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 건물의 배치는 원초적 기하학 형태 중 강한 시각적 이미지의 삼각형이며 크기를 달리한 삼각형의 결합은 인간과 자연이 만나는 장소로 역할을 담당한다. 태양의 입사각을 고려해 잘려진 빗변의 각도는 25.5° 로 남쪽으로 열려있고 그 방향 옥상에 가로로 길게 잘려나간 사각의 프레임은 **백색** 벽체를 배경으로 한라산의 형상을 담아 지역적 건축의 특성을 반영한다.

적층된 4개의 삼각의 박스에 법적인 용적률 극복을 위한 방책으로 공간이 절삭되고 높이를 달리한 새로운 공간들이 사람들을 연결 짓는 새로운 건축적 장치로 작용하며 단순한 형태 속에 볼륨변화에 의한 공간체험으로 다양한 공간의 시퀀스를 제공한다.

glamping star ville

안덕면, 2022

설계 (주)아이아크 건축사무소, (주)아뜰리에11 건축사 사무소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리 25-1 **지역지구** 제2종지구단지계획구역 **용도** 수련시설 및 운동시설 **대지면적** 75,025㎡ **건축면적** 3,719.22㎡ **연면적** 4,565.33㎡ **건폐율** 4.96% **용적률** 4.86% **규모** 지하 1층, 지상 1층 **최고높이** 11.8m **주차대수** 69대 **글램핑시설** 유르트 및 그램핑 텐트 39면 **중심지원시설** 빌센터(리셉션홀), 빌라홀(카페테리아) **부대시설** 빌케빈, 빌라홀(다목적체육관) **외부공간** 산책로, 네이처풀(야외수영장), 어린이 놀이터 등 **감리** (주) 아뜰리에 11 건축사 사무소 (주) 전인씨엠 건축사 사무소 **시공** CJ대한통운건설

별이 쏟아지는 한라산 600m 고지 하늘과 가장 가까운 깊숙한 제주 청정 자연속, 끊임없이 변화하는 부드럽고 지속적인 자연 환경을 통하여, 풍경의 색, 빛 , 향기 및 아름다움은 활력을 주고 제주의 아름다움을 더욱 더 부각시킨다.

아열대, 온대, 극지 식물 2,000여종이 섬 중앙에 위치한 한라산을 중심으로 수직으로 분포하며 식물의 보고량이 풍부하다. 해발 560~600m의 고지대에 위치하여 독특한 생태를 지니고 있어 자연의 아름다움과 거의 모든 곳에서 장엄한 전망을 제공하는 지리적 위치를 포함한다.

제주도 자체가 사화산으로 중앙이 하늘로 솟아오른 봉우리와 사방이 넓고 완만한 연안이 독특한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울창한 숲과 계곡, 기암절벽과 화산 분화구, 동굴과 초원이 어우러져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공간 컨셉의 핵심 키워드인 천상열차분야지도를 스타빌의 미리내길과 별자리길로 구현했다. 대지중심을 가로질러 외부 자연으로 뻗어나가는 경관의 흐름을 미리내길, 순환 보행로를 별자리길로 특화하였다.

완만한 경사를 따라 지붕을 올라가면서 제주의 '오름'과 조화롭게 일체화 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형상을 고려하며, 다른 시설들에 비해 거대하게 느껴질수 있는 빌라홀의 형태 역시 '오름'형상을 띌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캠핑은 일반적으로 아름다운 환경에서 야외 활동과 관련된 특별한 경험이다. 사이트 내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제주의 자연과의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각기 다른 목적지로 연결된다.

주변을 산책하고 다른 활동을 탐색할 수 있는 호기심을 유발하며, 사용자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아간다.

bakery
butter morning

애월읍, 2016

설계 (주)아뜰리에11 건축사무소_박현모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광로 279 **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용도** 단독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대지면적** 339.00㎡ **건축면적** 141.82㎡ **연면적** 141.82㎡ **건폐율** 41.83% **용적률** 41.83% **규모** 지상 1층 **최고높이** 4.05m **조경면적** 42.90㎡ **주차대수** 1대 **외부마감** 송판무늬 노출콘크리트, 스타코플렉스 **지붕** 노출콘크리트 **내부벽체** VP도장 **천장** VP 도장, 스포트라이트, 다운라이트, 펜던트 **감리** (주)아뜰리에11 건축사무소 **시공** 이장환 **발주처** 이장환 **사진** 노경 **모형사진** 반치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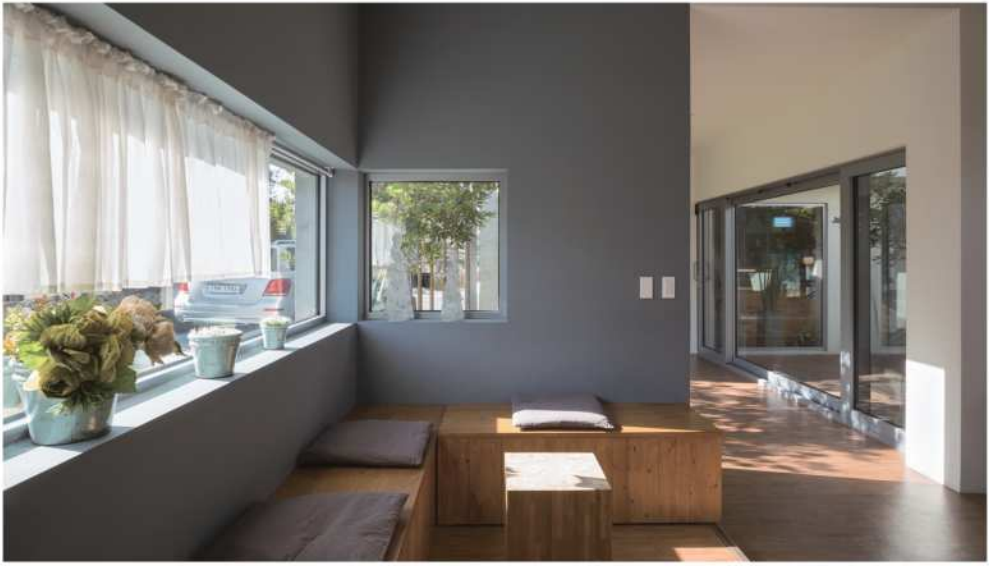
이 빵집은 한적한 시골 마을이라는 장소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는 빵집부부와 손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부부와 지역주민의 관계 역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이유로 가로변의 건물 형태 및 입면은 대조의 수법보다는 조화의 수법으로 방향이 정해졌다.

베타당

건물의 크기는 기존 가옥들처럼 낮은 자세를 취하고 도로변에 면하는 입면은 투명한 재료보다 인접한 제주 돌담이 연속으로 흘러들 수 있게 가로로 긴 매스감을 연출하였다. 또한 꼭 필요한 부분만 잘라내어 최소한의 입면적 형태를 취한다.

공간적 해결 방법은 외부로의 창은 가급적 제한하고 내부 중심에 작은 상자를 비워둠으로써 자연이 내부를 관통하고 공간과 공간 너머로 다양한 시각적 경험을 유도한다.

그들은 빵과 음료를 제공하는 아담한 크기의 카페, 햇볕이 잘 드는 마당, 부부의 휴게공간, 마지막으로 형태를 간소하고 밝은 디자인을 선호하였으며 기존 마을과 자연스럽게 조화되는 디자인을 요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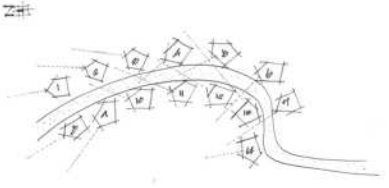
버터모닝은 부부가 함께 빵을 매개로 행복을 굽는 향기나는 가게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빵 굽는 일을 업으로 인생의 대부분을 이 장소에서 보낼 것이다. 이 공간은 언제나 향기가 가득하고 공간 사이사이로 흘러나가 가게 안을 가득 채울 것이며 손님들은 그 향기에 미소를 지으며 **이곳의** 추억을 기억할 것이다. 그런 소박한 삶이 향기가 둘러싸인 작은 상자(빵상자)를 선물하고 싶었다.

town house
la romance

애월읍, 2018

설계 (주)아뜰리에11 건축사무소_박현모 + 건축사사무소 바탕_황종호 + 김남건축_김진휴 , 남호진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2974-1번지 **지역지구** 제1종일반주거지역 **용도** 단독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대지면적** 1,983.00㎡ **건축면적** 384.21㎡ **연면적** 1,162.48㎡ **건폐율** 19.38% **용적률** 55.70% **규모** A-type 지상 3층 / C-type 지하 1층, 지상 2층 / D-type 지하 1층, 지상 2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최고높이** A-type 11.75m / C-type 8.75m / D-type 8.75m **주차대수** 15대 **외부마감** 파벽돌, 스타코플렉스 **지붕** 티타늄징크 **내부벽체** 노출콘크리트, VP도장 **천장** 노출콘크리트, 스포트라이트, 다운라이트, 펜던트 **감리** (주)아뜰리에11 건축사무소 **시공** (주)주하건설 **발주처** (주)주하건설 **사진** 반치옥, 김수진

라 로망스는 제주에서도 해안 절경에 손꼽히는 애월 해안도로에 면하여 있다. 한라산에서 시작된 지형은 해안 끝자락 절벽의 형태로 떨어지며 바다와 만나고 돌과 물이라는 재료적 물성이 강한 시각적 대비를 이루고 있다.



이런 장소적 특징을 고려함과 동시에 전 세대 바다 조망이라는 두 가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연에서 아이디어를 유추하여 건축에 적용하였다.

건물의 배치는 증식된 생물체의 세포처럼 결합된 오각의 입체적 결속을 상징한다.

각 동의 기본 유닛은 오각형 방어적 형태로 유기적 생명체의 조형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는 자연스럽게 벽과 개구부의 방향을 달리하여 전망을 확보함과 동시에 시선의 충돌을 최소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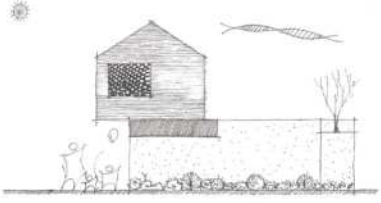
중앙에 위치한 구부러져 관통하는 도로를 기준으로 다양한 각 동의 세대배치는 짧은 인동간격에도 불구하고 전 세대에서 전망(바다 조망), 채광, 사생활 보호를 가능하게 하였다.

residence
house M

도남동, 2019

설계 (주)아뜰리에11 건축사무소_박현모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남동 772-1번지 **지역지구** 제1종일반주거지역 **용도** 단독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주택) **대지면적** 306.40㎡ **건축면적** 167.94㎡ **연면적** 186.39㎡ **건폐율** 54.81% **용적률** 60.83% **규모** 지상 2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최고높이** 9.29m **주차대수** 2대 **외부마감** 파벽돌, 스타코플렉스 **지붕** 티타늄징크 **내부벽체** 노출콘크리트, VP도장 **천장** 노출콘크리트, 스포트라이트, 다운라이트, 펜던트 **감리** (주)아뜰리에11 건축사무소 **시공** (주)주하건설 **발주처** (주)아뜰리에11 건축사무소

House M은 제주시 시내 도남동 시민복지타운 내 단독주택부지에 자리 잡고 있다. 부지 인근으로 근린공원, 시민복지타운 광장, 공영주차장 등 주민 편의시설이 위치해 있고, 비교적 건축밀도가 낮아 한적한 주택가 지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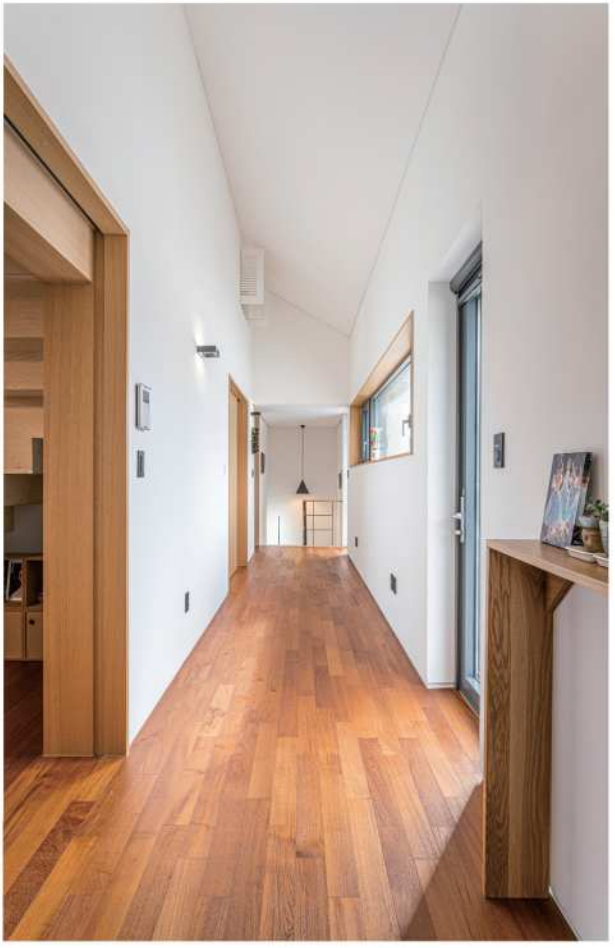


대지의 중심부를 기준으로 가로, 세로 3.6m의 3X3, 9개의 그리드(9 square grid)를 만들고, 그 중심을 비워내며 진행되었다. ㄷ자형으로 둘러진 1층의 공간과 ㅣ자형의 2층의 결합으로 입체적 시퀀스를 만들며, 중정형의 건물 배치를 갖게 된다.

과거 주거의 역할이 비, 바람 등 외부 공격의 피난처라면, 현재 도시에서의 주거는 외부로부터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House M은 주택의 프라이버시 확보, 자연과의 소통에 프로젝트의 초점을 두었다.

비워진 중정은 주거의 심장이며, 이를 중심으로 채광과 환기를 고려하여 각 실들이 자리를 잡는다. House M의 실들은 각각 다른 외부공간을 만나며 빛과 바람이 주는 다양한 경험을 선사할 것이며, 가족들의 추억상자가 되길 바란다.



office naksanjae

연동,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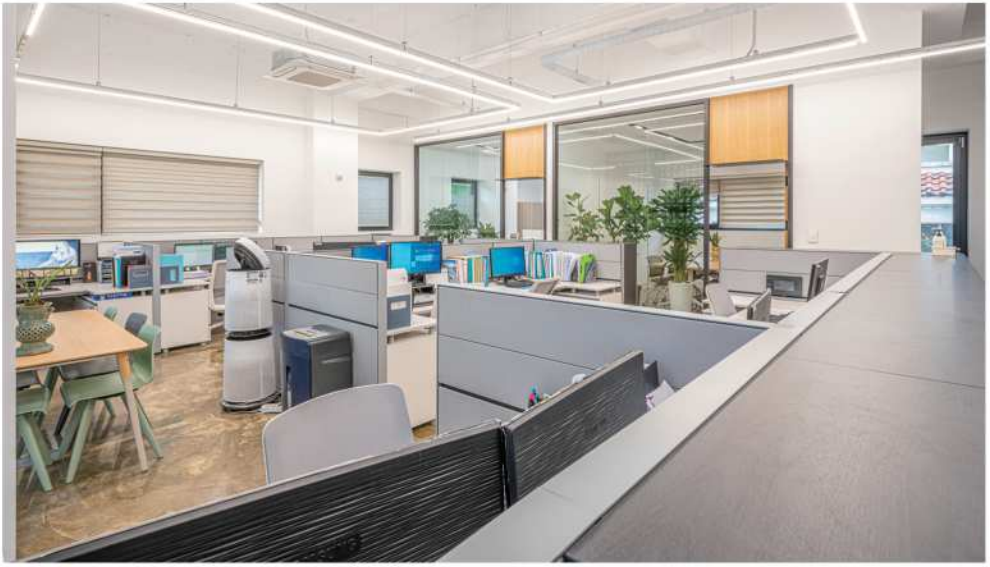
설계 (주)아뜰리에11 건축사무소_박현모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 16길 23 **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도** 단독주택및 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 352㎡ **건축면적** 181.17㎡ **연면적** 624.74㎡ **건폐율** 51.47% **용적률** 177.48% **규모** 지상 5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최고높이** 20.7m **조경면적** 17.60㎡ **주차대수** 5대 **외부마감** 큐블럭, 와이드벽돌 **지붕** 노출콘크리트 **내부벽체** 노출콘크리트, VP도장 **천장** 노출콘크리트, VP도장 **감리** (주)아뜰리에11 건축사무소 **시공** (주)원일건설 **발주처** (주)원일건설 **사진** 반치옥

도심 노후화에 따라 도심 재생, 활성화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입장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접근하였다. 밤이 되면 비어버리는 도심이 아닌, 주거와 업무, 소비가 균형을 이루는 건물을 원하였다.

낙산재가 들어서는 위치는 과거 신제주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형성되어있다. 오래된 1~2층 주택들이 대부분인 지역에서 주변의 건축과 어울리며 동시에 앞으로 변화할 이 지역에 어떠한 기준점을 풀어나갈 접근을 시도하였다.

건물의 배치는 시공회사 사옥에 맞는 강한 박스 형태로 시각적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박스는 매스를 분절 및 비움으로써 공간이 형성된다.

강한 시각적 이미지에 맞춰 입면에 쌓아 올린 블럭은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로 이어지는 건축 재료이다. 콘크리트의 무거운 매스감과 다르게 단일 덩어리를 구축 및 조합하는 과정에서 블럭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



블록을 쌓아 올린다는 건축적인 수법은 건축주가 원하는 '낙산재' 의 의미를 담아내기에 아주 적합한 재료 였다. 단순히 쌓아 올린다는 개념과 더불어 새롭게 조합하여 결합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건물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이미지를 형성했다.

유리와 블록의 조합으로 강하지만 유한 이미지를 동시에 표현한다. 중정에서 복도의 통유리로 비치는 오죽과 연못은 창밖으로 온전한 계절들이 변해가는 시퀀스를 나타내고 있다.

낙산재는 논어에 '어진 이는 산을 좋아하고 지혜로운 이는 물을 좋아한다' 는 글에서 이름을 따, 여기에 산처럼 모여 즐겁기를 바란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 건물이 작은 산처럼 서고,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어질고 즐겁기를 바란다.

stay
hado dai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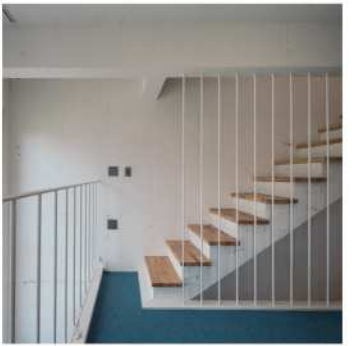
구좌읍, 2021

설계 (주)아플리에11 건축사무소_박현모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1091-62,65 **지역지구** 보전관리지역 **용도** 근린생활시설및 단독주택 **대지면적** 1,848㎡ **건축면적** 241.84㎡ **연면적** 389.17㎡ **건폐율** 18.90% **용적률** 30.62% **규모** 지상 2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최고높이** 9.29m **주차대수** 2대 **외부마감** 스타코플렉스 **지붕** 스타코플렉스 **내부벽체** 노출콘크리트, VP 도장 **천장** 노출콘크리트, VP 도장 **감리** (주)아플리에11 건축사무소

하도기록은 하도리의 바닷가 앞 울창한 소나무 숲에 위치하고있다. 일을 잠시 접고 여행을 온 제주 동부, 하도기록 호스트는 조용하고 아름다운 하도리에 머무는 동안 아침에 들리는 기분 좋은 새소리와 고요한 일출의 황홀한 모습에 언젠가 이런 곳에 살고 싶다는 꿈을 꿨다. 조용하고 자연과 가까운 곳에 천천히 쉼을 가지며 머물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마음이 **하도기록의 첫 페이지였다.**

기존 대지에 오래전부터 자리를 잡고 있던 소나무들을 자연상태 그대로 보존하고자 하였고, 이는 소나무밭에 공간이 최대한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배치가 된다. 형태는 단순하고 간결하게 그곳에 살포시 얹어 가장 순수하게 주변과 땅의 흐름들에 순응한다.

하도기록의 각 동들은 원초적 기하학 도형의 공간적 배열을 다르게하여 여러 형태 조합을 가지며, 이는 자연 속에서 다양한 공간의 시퀀스를 만든다. 또한 단순화된 형태 속 절제미와 통일감을 갖는다.



숲과 바다가 만나는 이곳은 기존 소나무 숲에 배치된 하도기록의 건물을 통해서 누구에게나 넓은 자연 속에서 안락하고 편한 휴식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공간이 된다.

pavilion atelier

전시기획, 2020

건축사 박현모와 사진작가 반치옥이 만났다. 점, 선, 면 그리고 빛을 다루는 두 작가의 공동작업이 시작되었다.

유동인구가 많은 사거리에 위치한 사옥의 하얀 입면은 거대한 캔버스가 되고, 그 위로 사진작가 반치옥의 작품이 그려진다. 그 순간, 우리 일상생활의 공간은 문화 공간으로 변하고, 거리를 지나는 이들은 두 작가로 인해 전시회에 초대된다. 사람들의 일상공간이 환기되며, 새로운 방식의 전시를 제공한다.

제주의 돌이 모델로, 내부가 아닌 외부를 향해 전시된 작품들, 그리고 전시된 작품을 넘어 전시 공간, 건물 전체를 보고 즐기는 이번 전시는 건축사무소가 기획하는 전시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atelier ll

[섬돌]

_고래를 위한 포트레이트 series 1

이 작업은 그 대상을 제주 돌로 삼았다. 인물 사진을 찍는 것처럼 조명을 세심하게 다루었고, 사람이 앉아야 할 자리에 돌을 배치했다.

[전광석화]

_고래를 위한 포트레이트 series 2

얼굴은 사람을 장식하는 많은 외부요소 중 하나가 되어버려서 그 자체로 선입견이 된다. 그래서 작업의 방향은 사람의 얼굴을 돌로 가리는 동시에 돌에게 몸통을 만들어 주는 것이었다.

전광석화 작품 중 일부가 사옥에 전시되어 수직적 움직임 사이에서 괴리감을 주었다. 각 층에서 바라보는 작품의 압도감에 직면하는 또 다른 시퀀스를 만들어낸다.

atelier u

파빌리온은 사옥의 형태를 닮아있고, 얽혀있는 선들은 사람들을 안으로 이끌고, 밖을 보도록 동선을 유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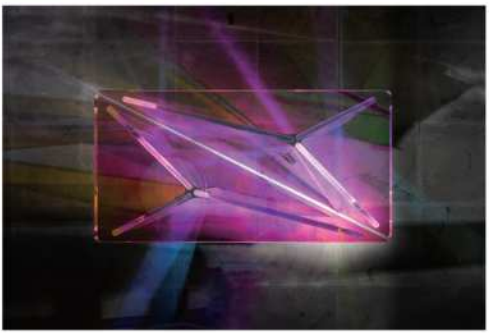
파빌리온에 입혀진 도형은 사옥의 창, 가구, 평면, 계단 등 내·외부를 분해하고 재해석해 만들었다. 색 아크릴 판들은 시시각각 변하는 빛, 바람을 만나 공간에 활기를 불어넣고, 주변을 색으로 채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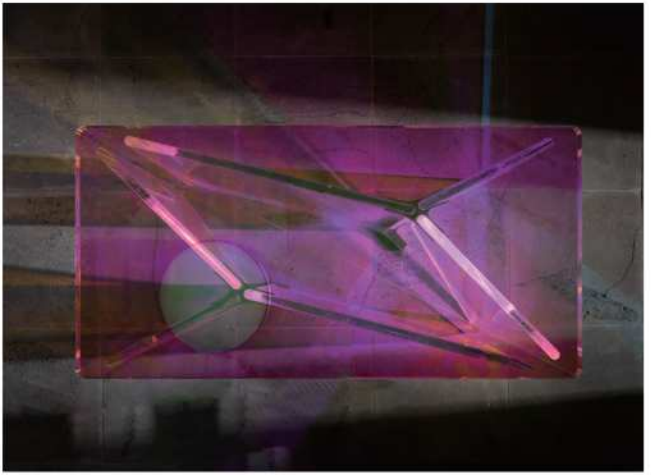
table
trism

가구디자인, 2021

디자인 (주)아뜰리에11 건축사무소_박현모 **소재** 아크릴 **마감** 다이크로익필름 **색상** 홀로그램 **사이즈** W1500 × D750 × H700 (mm)

트리즘은 일반적인 사각형 형태에서 벗어나 삼각형의 테이블을 공간에 맞추어서 조합하는 모듈형 가구이다. 아크릴에 다이크로익필름으로 마감된 테이블은 보는 각도와 빛에 따라 컬러가 변화하고, 공간에 감각적이고 유니크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향해 3개의 테이블 다리가 배치되고, 사선으로 잘려진 다리는 트리즘만의 강렬한 이미지를 갖는다. 사이 공간으로 유입된 빛들은 다채로운 색감을 갖고, 조합된 테이블에서 우리는 서로 만나 소통하고 교류한다.

ADAM Design STAY

adam stay

판포리, 2023

설계 (주)아뜰리에11 건축사무소_박현모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 2439-1 외 1필지 **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 **용도** 단독주택 및 창고시설 **대지면적** 1,500.00㎡ **건축면적** 165.76㎡ **연면적** 159.16㎡ **건폐율** 11.05% **용적률** 10.61% **규모** 지상1 **최고높이** 5.7m **주차대수** 2대 **외부마감** 독일 프로피텍 실리콘플라스터 K **내벽** 노출콘크리트, 인테리어벽 **천장** 노출콘크리트 , 인테리어천정 **감리** (주) 아뜰리에 11 건축사사무소

제주 서쪽 끝. 석양이 예쁜 바다를 지닌 판포포구 . . . 적당히 자그마하다는 순 우리말인 동시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 인간이라는 복합적 의미를 지닌 '아담스테이는 그곳 마을에 알맞은 크기로 자리잡고 제주의 목가적 풍경과 관계를 맺는다.

EVERGREEN

박공지붕의 고전적 매스가 지니고 있는 최소한의 형태미는 주택의 본질을 반영하고 제주 자연문화속에 강한 시각적 대비로 긴장감을 불러일으킨다. 더하여 집을 상징하는 굴뚝은 어어컨의 공간으로 현대적인 재해석을 하였다.

실내는 중정을 중심으로 순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의도적으로 길게 계획된 동선은 다방면에서 건축적 공간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더하여 욕실-중정-거실-외부로 시야가 겹쳐 작은 공간이 큰 공간으로 인지되어진다.

거실에서 폴딩도어를 열면 야외 자쿠지와 테이블이 나온다. 어닝이 있어 계절에 관계없이 노천탕을 즐길 수 있다.

다락 공간은 침실과 사유의 공간으로, 건물의 내외부로 조망및 소통이 가능하며 박공형의 형태가 자연스럽게 공간화되어 머무는 순간의 감성적 요소를 더한다.

urdr

cafe urdr

어음리, 2023

설계 (주)아뜰리에11 건축사무소_박현모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3542-1번지 **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 **용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카페) **대지면적** 2314.00㎡ **건축면적** 254.47㎡ **연면적** 199.77㎡ **건폐율** 21.91% **용적률** 17.27% **규모** 지상 1층 **최고높이** 6.7m **주차대수** 1대 **외부마감** 스타코플렉스 **벽** 노출콘크리트 **천장** 노출콘크리트, 스포트라이트 **감리** (주)아뜰리에11 건축사 사무소

우르드르는 북유럽 신화에 등장하는 신성하고 신비로운 샘이다. 신화의 신비로운 샘처럼, 제주 중산간의 지형을 따라 흐르는 공간이 하늘을 담는샘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시각적 시퀀스를 경험시키고 제주 자연의 신비로움을 담는다는 발상에서 우르드르는 형태를 갖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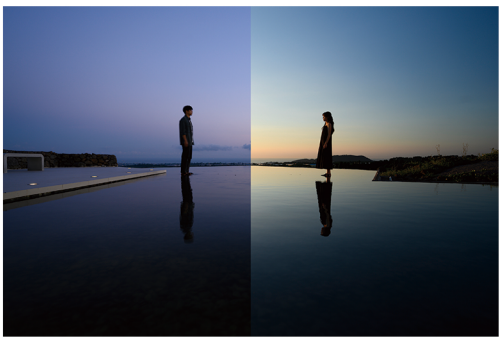
대지는 제주 어음리의 경사진 언덕에 위치하여 제주의 돌담들과 오름, 바다가 어우러진 수평적인 절경을 지니고 있다. 모던한 형태를 지닌 입면은 경치와 같은 궤를 지니며 차분하게 동화된다.

입면의 원통형 매스는 수평의 중심축을 벗어나도록 변주를 주었고 이를 통해 자연의 신비로움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내부로 들어서면, 대지의 경사로 인해 높이가 확장되어진 공간이 반전을 이루고 있다. 지형을 따라 흐르는 대지공간에 자연스럽게 순응하는 계단식 좌석들을 배치되고 공간은 자연스럽게 통창을 지나 외부의 샘으로 연결된다. 창 너머 보이는 제주의 목가적 풍경과 더불어 하늘을 **담은** 샘은 시간과 계절에 따라 변하며 신비로움을 더 넘어 신성함을 담고있다.

urdr

urdr



건축사

박현모

박현모 소장은 제주대학교에서 건축학을 전공하였고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공학대학원을 졸업하였다. 제주에서 실무경험을 쌓았으며, 현재 (주)아뜰리에11 건축사사무소를 운영중이다. 그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많은 상을 수상하였다.

2023 제주건축문화대상 (본상) - 우르드르
제주건축문화대상 (특선) - 아담스테이
2022 제주건축문화대상 (대상) - 스타빌
제주건축문화대상 (특선) 본상 - 하도기록
2021 '나는 제주 건축가다' 집필
2020 IF Design Award 본상 (2020)
A' Design Award Winner Gold Medal
2019 제주건축문화대상 (특선) 본상 - 아뜰리에 11 사옥
제주영상문화진흥원 현상설계 (2등)
한국건축문화대상 우수상
아시아건축상 (AAA2019)
2018 제주건축문화대상 (특선) - 라 로망스
2017 한국농어촌건축대전 본상 - 버터모닝
제주 삼도 행복주택 현상설계안 당선
대정읍 사무소 현상설계 (2등)
2016 제주건축문화대상 (특선) 수상 - 버터모닝
2014 제주건축문화대상 (특선) 수상 - 그 해 제주
대한민국 신진건축사 대상 (우수상) 수상 - 김녕리 5992
2010 제주건축문화대상 (특선) 수상 - 구엄리 799-9
2008 제주건축문화대상 (특선) 수상 - 제주하늘푸른바다

주식회사 아뜰리에일일 건축사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528, 2층
Tel. 064-725-1107 / Fax. 064-702-9399
E-mail. atelier11a@hanmail.net
http://atelier11.co.kr